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의견서

가 해 자 최 형 섭

피 해 자 박 진 주

2023. 8. .

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변호사 최 지 형

대구남부경찰서

귀중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의견서

가 해 자 최 형 섭

피 해 자 박 진 주

피해자 국선 변호사 최 지 형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상가 203호(범어동,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전화) 053-719-3331, 팩스) 053-719-3339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을 준강간치상죄(준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는 피해자가 만 18세이던 2012. 10. 13. 가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하게 되

었습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에 대해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고소가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본인이 고소를 해야 한다는 사정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 그러나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우울증으로 심리상담을 받던 중 본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현재까지 치유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갓 대학을 들어간 만 18세의 성경험이 전무했던 자로, 이 사건 발생 후 성기에서 피가 나 팬티에 피가 묻어나 있었고(첨부서류 1 대구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아랫배의 욱신욱신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0. 13. 대구의료원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증거채취 및 진료를 받고, 2012. 10. 15. 대구의료원 산부인과 진료, 2012. 10. 29. 대구의료원 산부인과 진료를 각 받았

습니다.

(2)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2. 10. 15. 대구의료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5시 7시 방향의 처녀막 열상 및 질분비물이 관찰되었고,

다 음

기제출된 대구의료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4쪽 참조	설명
V/D: 처녀막 열상(+), 5시 7시 방향 Rx: 1) v/d 2) OPD f/u	5시 7시 방향 처녀막 열상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에 대한 처방(Rx)으로, 1) 질 분비물(v/d=vaginal discharge), 2) 외래 산부인과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OPD f/u= Out Patient Department follow up)

(3) 2012. 10. 29. 완력에 의한 성적학대로 급성질염 진단받고, 급성임균성 자궁경관염 주사를 맞은 후 후라시닐정 등 부인과 감염증 약 등을 처방 받아 복용을 했습니다(기제출된 대구의료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5쪽 내지 제6쪽 참조).

(4) 한편, 강간 및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¹⁾, 즉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더라도, 중

1) 최근 피해자와 유사한 사례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고합57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한 후 소변을 보다가 성기에서 피가 약간 났고 이후 더 많은 피가 난 사실, 피해자는 이

상 자체가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상해정도가 0.1cm에 불과하더라도 각 개별적 사안에 따라 상해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 음

순 번	내 용
1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비록 피해자가 <u>성경험을 가진 여자</u> 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u>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u> 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2	피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꼭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u>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u> ,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3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 만큼의 넓이로 묻었음) 콧등이 부었다면 <u>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u>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4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u>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u>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상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5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u>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u> 이것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를 후인 2019. 9. 27. 부산광역시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처녀막 6시 방향의 열상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처는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첨부서류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57 사건 판결문)

6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u>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u> ,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	-------------------------------------------------------------------------------------------------------------------------------------------------------------------------------------------------------------------------------------------------------------------

(5) 한편 피해자의 경우 전술한 사정들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기들 말에 따르면²⁾, 동기들이 과방 문을 열었을 당시 가해자 및 피해자의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과방에 누워있었으며, 가해자가 그 위에 올라타 있었다고 하는 바,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처녀막에 열상을 입히고 급성질염에 이르게 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³⁾.

(6) 따라서 부디 가해자를 준강간치상 또는 준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⁴⁾.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가해자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 현재 피해자는 최초 피해자를 진단했던 의사의 거처를 알 수 없어,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 상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및 이틀이 지나 질분비물 및 처녀막 열상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그로부터 2주가 넘어서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여전히 완력에 의한 성적학대로 급성질염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치상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금번 사건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형법 등에 따라 고소기간(1년) 도과로 가해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는 불우한 처지에 있습니다.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하고, 성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즉 피해자는 상당기간 동안 병원의 치료 없이 본인 스스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늦었지만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3) 한편,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의 심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못하였으나, 상해라는 것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되므로, 피해자가 강간 피해 이후 외부적인 상처를 입은 바는 없다 하더라도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판결), 가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점은 예견할 수 있었음이 분명한 점 등을 수사에 적극 참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추후 심리 치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위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참 고 자 료

1. 대구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7. 5. 선고 2022고합 57 사건

2023. 8. .

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변호사 최 지 형

대구남부경찰서

귀중